

“휴가요? 살아남는 게 먼저죠”... 자영업자들의 한숨

여름철 성수기 음식점·카페업 등 방문해보니

여름 성수기 맞은 음식점·카페 업주 “하루 벌어 하루 버텨요”...휴가 반납 불경기에 직원 감원 업주 혼자 버텨 알바 주휴수당 부담...무인기계 늘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휴가 계획이 있겠어요. 있는 직원도 그만두게 해야 할 판입니다. 제가 일을 해야 간신히 하루 버팁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노혜진(54)씨는 올 여름 휴가계획을 묻자 한숨부터 먼저 내쉬었다. 가게 형편상 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화된 도심 환경 탓에 더욱 수속 손님들 발길도 줄어든다”며 “충장로가 무더위에도 다시 찾는 거리로 거듭나려면

상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자영업자 비율은 19.4%지만 전남은 28.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광주도 17.7%로 전국 8곳의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21.0%), 대전(18.0%)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충장로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이들에게는 여름휴가가 아니라 올 여름 버티느냐 아니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상권, 한결음도 걷기 힘든 무더위, 수년째 지속되는 경기 침체,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여름휴가 대신 ‘생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여름이 성수기인 카페 업종조차도 “살아남을지 알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든다.

광주 충장로 카페 업계에서는 ‘여름을 포함해 6개월 벌어야, 6개월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법칙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성인(31)씨는 “카페는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성수기여서 여름 휴가를 낼 수도 없지만, 이때 벌지 않으면 하반기를 버틸 수 없게 된다”면서 “마음 놓고 휴가를 가려면 우선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경기가 나아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예술의거리 상인회장 이호철씨도 “휴가철이 따로 있겠느냐. 그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7월에 예정된 축제가 현재 희망이다. 축제를 계기로 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예 재충전을 위해 문을 닫겠다는 업주도 있다. 어차피 여름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라는 서글픈 판단 때문이다.

충장로 상가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노모(61)씨는 “6월 중순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여름에는 더욱 안될 것 같아 차라리 충전을 하고자 가족과 휴가를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씨는 “가게를 두고 떠나는 것이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직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주들은 “너무 부담되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기존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도 부담이지만, 현 정부는 여기에 더해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를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임대업(42)씨는 “저희 가게는 아르바이트 관리가 힘들어 차라리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쓰고 있다”며 “사람 뽑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직원들의 쉬는 날에 맞춰 휴가일도 조정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주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업주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업주들의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에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속내를 털어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일부에서는 아예 무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기도 했다.

이미 대학가 뿐만 아니라 충장로에도 무인 점포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지역 한 대학가의 김성애(45)씨는 유인 카페를 운영하다 최근 무인 카페로 전환했다. 김씨는 “주휴수당 등 인건비가 비싸져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요즘 학생들은 혼자 카페를 이용하거나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을 쓰기보다는 무인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자체 개발 ‘생명지킴’ 교육, 보건복지부 재인증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체 개발한 생명지킴이 교육이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심사서 재인증 받았다.

광주동구는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한마음터)가 자체 개발한 청년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요즘 어때?’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재인증 심사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요즘 어때?’는 △정년기 자살 현황과 자살 위험 요인 △자살 위험 신호 인지 및 개입 방법 △주변에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6가지 질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은 청년층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한마음터가 자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이후 생명지킴이 양성 및 전문 강사 운영을 통해 확산·보급돼 왔다.

정유철 기자



광주 북구 청렴 실천 캠페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념 ‘구청장이 쓴다’에서 청렴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완도 해상서 표류하던 모터보트 무사 구조

전남 완도 해상에서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은 모터보트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날 30일 오후 9시5분께 모터보트 A호(1.16톤, 승선원 2명)가 전라남도 완도군 대장구도 남동방 약 3km 인근 해상에서 국지성 안개로 방향을 상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연안구조정 2척을 투입했고 현장에서 표류 중이던 A호를 발견,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해 땅끝

갈산항까지 입항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조사결과 A호는 같은날 오후 3시30분께 전라남도 해남군 송호항에서 출항, 레저활동 중 안개로 방향을 상실해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레이더, AIS 등 항해 장비를 점검과 위치추적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승우 기자

목포 한 아파트서 불... 재산피해 4700만원 추정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인 1명이 대피했다.

1일 목포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1분께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원 51명을 투입해 19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세대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다른 층에 거주하는 입주인 1명이 대피했다.

이 불로 세대가 반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47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고흥 상가서 화재... 630여만원 재산피해 추정

고흥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일 고흥소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16분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9대, 인력22명을 투입해 화재발생 23분만

인 오후 4시 39분께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가 내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추산 63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수사 검사, 재심 공판 출석 의사

法, 내달 19일 재공판

지난 2009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알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던 A(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판 당일 실시간으로 소재를 조회해 직접 법정에 데리고 오겠다”며 재

판부에 당시 담당 검사 B씨의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A씨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B씨는 유선전화로 검찰청에 직접 연락해 ‘8월 이후 증인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이에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소재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B씨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공판 진행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9일 B씨를 증인으

로 불러 차기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정유철 기자

‘지도 한 장 들고 야산서 비박’... 전국 떠돌이 절도범 검거

39차례 걸쳐 1300만원 훔쳐

경찰 추적을 피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2년 만에 붙잡혔다.

1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한 상점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2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39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2년 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국 지도에 의지해 떠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상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한 차례 범행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여러 차례 옮겨다니고, 밤이 되면 야산에 올라 신문지나 비닐 등을 깔고 자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비가 쏟아진 지난 20일 산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찾은 A씨를 검거했다.

이정준 기자